

투데이 칼럼

북한의 아오지 탄광

북한의 아오지탄광(阿吾地炭鑛, Aoji Coal Mine)은 함경북도 경흥군에 있는 탄광이다. 광복 당시 행정구역은 함경북도 경흥군 아오지읍 일원이다.

‘아오지(阿吾地)’라는 지명은 아우라지의 동북 방언으로 ‘두 물이 만나는 곳’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 외에도 여진어설 등이 있다. 여담으로 ‘아 오지마’라는 뜻으로 아오지란 지명이 지어졌다는 설도 있다.

이곳은 과거 백학산 남쪽의 응기읍과 함께 경흥군의 양대 중심지로 번영했다. 1952년 구 신아오지리 지역에 경흥읍을 설치하고 1967년 아오지 탄광을 6.13탄광과 오봉 탄광으로 분할했다.

1981년에 구 아오지리를 화송리로 개편하면서 공식적으로 아오지라는 지명은 북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열악한 환경으로 유명했다.

특히 북한 정부 수립 이후로 북한 정부에 반대한 상당수 정치범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아오지에서 막장을 썼다.

그래서 정치범수용소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이후로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탄광지역으로 바뀌었다.

이곳에서는 주로 갈탄이 나온다.



정복규

논설위원

이름바 함경북도 남부탄전이라는 김주명천 지구대 일대와 함께 이곳은 한반도에서 돌린 갈탄 채굴 지대다.

매장량은 약 1억 5천만 톤으로 추정했는데 설비의 노후화로 채광을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함경북도 탄광 대다수가 설비 노후화와 자재 부족으로 채광을 하지 못하고 있다.

1940년 상하면이 아오지읍으로 승격해 일제 말기에는 인구가 5만 명에 가까울 만큼 큰 읍이었다. 남북 분단이 안 되고 한반도가 전부 대한민국 관할이었다면 1949년 단천읍과 함께 아오지시로 승격되었을 것이다.

이곳은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오지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명하다. 실제로 평안북도 철산군의 철산 탄광과 함께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양대 산맥이다.

가 이루어져 현재 북한 내 탄광 중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고 한다.

북한에서 김씨 일가와 관련된 사적지는 그야말로 ‘성지’와 같은 대우를 받는 곳이다. 김일성이 다녀간 것을 기념해서 사적지로 지정된 곳을 강제수용소로 사용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50년대에는 수용소로 사용됐다. 그러나 1967년 명칭 변경과 사적지로 지정된 후에는 강제수용소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출신 성분이 안 좋거나 타지에서 추방당한 이들이 정착한 지역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매급도 제일 먼저 끊긴 지역이다. 다만 최근에는 추방을 시켜도 아오지로 보내지는 않는다. 탄광이 국경지대 근처에 위치해 있어 탈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탄광의 탄맥도 이미 1980년대에 끊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탄광 체험 관광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오지 탄광의 악명은 지금도 너무 크다.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나 남한의 서대문형무소 같은 느낌이 다. 이곳은 북한의 정치수용소를 대표하는 다크투어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설

어느 연년생 3자녀 생일잔치

최근 전주에서 연년생 3자녀 합동 생일잔치가 열렸다. 4년 전인 2018년도 10월에 결혼식을 올린 정국진(89년생)·엄정현(89년생) 가정이 바로 주인공이다.

이들은 결혼 이듬해부터 딸려울(2019년 9월29일생), 딸라희(2020년 9월2일생), 아들 리건(2021년 9월29일생) 등 세 자녀를 연년생으로 출산했다.

이들 부부는 아들 리건의 첫돌을 맞아 지난 2일 전주 파티원에서 친지와 지인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생일잔치를 벌였다.

아이들의 아버지 정국진씨는 현재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호남·제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돌잔치를 못하다가 주변 지인 젊은 세대들에게도 자극을 주고 싶어 이번 세 자녀 합동생일 잔치를 하게 되었다”며

“축하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녀를 기르다 보니 또한 지회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어 앞으로 효의 도리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재 신한국 가정연합·UPF 공동회장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연년생으로 세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이 같은 가정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나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갈수록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1에서 올해 0.75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국진씨 자녀 합동 생일 잔치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KBS 전주방송총국 사랑나눔

최근 KBS 전주방송총국 주관 사회 공헌 사업인 ‘사랑 나눔 행사’가 지역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동안 매년 진행했던 KBS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다.

그러다가 이번 3년 만에 행사를 재개했다.

지난 5일 순창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순창군 순창읍 일품공원 내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어르신들을 포함해 약 6백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찾아왔다. 전주비전대 1학년 학생 30여명은 정성이 가득한 손길로 피부 마사지 및 헤어, 네일케어 등의 봉사를 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어르신들의 심신을 위로한 것이다. 특히 피부 마사지를 받은 어르신들은 “어느 누가 우리 같은 노인들을 찾아와 이렇게 아픈 몸을 주무르며 따뜻한 손길로 풀

어주겠느냐”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치 도시에서 예쁜 손녀들이 찾아와서 우리 노인들의 아픈 심신을 마사지해준 느낌이라 보약 같은 따뜻한 치료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김은영 전주비전대 교수(미용건강과 학과장)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어르신들을 찾아 피부 미용 서비스와 사람의 소품으로 조금이나마 위로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봉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더욱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ESG 운동의 정신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참여를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어르신께 효심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KBS 전주방송총국 주관 사회 공헌 사업인 ‘사랑 나눔 행사’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불길과 연기 치솟는 크림대교



8일(현지시간)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케르치해협 대교)에서 폭발이 일어나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 크림대교 자동차 교량을 지나던 트럭에 실린 폭탄이 터져 철교의 화물열차 연로 저장탱크를 실은 화차에 불이 옮겨붙어 폭발, 다리 일부가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쿠, 너 살아있었구나”



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리스 테헤리아스에 홍수가 발생 후 한 남성이 진흙탕 속에서 이웃에 구조된 빈려견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현지 당국은 폭우로 계곡이 범람하면서 돌발 홍수가 발생해 최소 2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